전법행으로 임인년 빛낸 스님·불자는 누구?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념 스님
문화 포교 공로…30일 시상식
대원상 우학스님, 대불청 선정
진흥원, 11월22일 시상식 개최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전법 ·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불자, 단체들을 시상하는 불교계 포교상들이 잇달아 수상자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6일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로상(총무원장 표창)에는 지범 스님(보문사 주지), 김문자 관음사 신도회장, 강학수 울산 정토사 교육국장, 안병권 마곡사 신도회장이, 원력상(포교원장 표창)에는 정무 스님(동련 이사장), 이삼주 백양사 전남광주지역법회장,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 김성희 봉은사 불사화주단장, 정성숙 체육인불자연합회 부회장, 박정환 불교크리에이터, 대한불교청년회가 각각 선정됐다.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인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비롯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활동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오대산 월정사' 유튜브 활동으로 교계 주요사찰 유튜브 중 최초 구독자 수 4만 명을 달성하면서 변화된 전법 포교에 노력하고 있다.

포교원은 "정념 스님은 조계종 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년대계본부 본부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 포교 전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불교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시상하는 제19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로 출가 부문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재가 부문에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19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 11월 14일 최종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가 부문 대상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인 우학 스님을, 특별상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재가 부문 대상에는 (사)대한불교청년회가, 장려상에는 김구석 (사)경주남산연구소장이 수상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우학 스님은 1992년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도량을 창건한 이래 30년간 대구 · 경북지역 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과 수행, 실천 활동을 이끌면서 도심포교당의 현대적 모델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해 '유튜브를 통한 정토구현'이라는 새로운 발원을 세워 정진하며 국내외 불자들의 수행과 불교공부를 이끌고 있다.

재가 부문 대상 수상단체인 (사)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립한 이래 102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불교청년단체로 오랜 기간 불교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한국사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과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국만해백일장을 비롯해 청년 불자들의 방향모색을 위한 전국불교청년대회,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군부대 지원 법회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자현 스님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 현대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전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쉼 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재가 부문 장려상 김구석 소장은 신라 불교 성지인 경주 남산 지킴이로 활동하며 평생을 경주 남산의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홍보에 매진해왔다.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비롯해 1981년에는 경주 남산 성역화 활동을 전개했고, 1997년에는 '경주 남산 세계유산등록 추진을 위한 시민모임'을 주창하며 경주 남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데 기여했다.

제19회 대원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초청해 11월 22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2000만 원, 특별상은 1000만 원, 장려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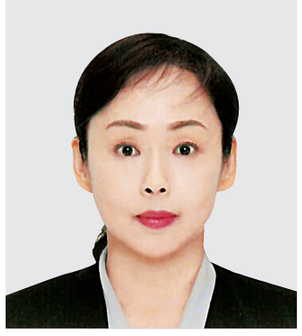
정념 스님

제19회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



우학 스님

제19회 대원상 재가부문 대상



대한불교청년회(장정화 중앙회장)

조계종, 힌남노 피해 사찰에 1억원 지원

진우 스님 11월 14일 경주 황룡사 · 백률사에 전달

조계종이 올해 여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황룡사와 백률사에 태풍 수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주 황룡사 주지 도연 스님과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의 예방을 받고 수해 지원금 8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복구에 진력하고 있는 주지 스님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조속한 시일에 정상적인 가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은 "종단에서 어렵게 모금한 성금을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황룡사는 힌남노의 북상으로 요사채가 파손되고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백률사는 출입 길목으로 토사가 떠밀려 오면서 굴불사터를 덮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4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 황룡사 주지 도연 스님(왼쪽 사진)과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오른쪽 사진)에게 지원금 8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에 호산 스님

문체부 심의위, 16일 회의서… 기념관 현황 공유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소속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 · 27법난위원회)는 11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호산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10 · 27법난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명선대종사 스님의 말씀과 다른 어른 스님들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10 · 27법난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종단의 총무부장으로서 10 · 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 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에 선출된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사미계) 했다. 상원사, 용문사 주지 및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총무부장이다.

호산 스님과 함께 이날 민간위원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10.27법난 피해자 모임회장 명선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연화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 김민숙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등이 각각 위촉됐다.

정부위원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등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0 · 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추진 현황과 촉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은호 기자**

청년 대학생, 신행순례길서 걷기명상

11월 25~27일 제주 관음순례길서 진행

조계종 포교원이 재가불자의 새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한 교구별 순례에 청년대학생들이 동참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 이하 대불련)는 11월 19~20일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에서 순례를 진행한 데 이어 11월 25~27일에는 제주 관음사에서 관음순례길 순례를 이어간다.

제주도 관음순례길은 제주 관음사부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까지의 10km로, 산천단과 남국사 등 제주 한라산의 불교문화와, 제주도심까지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례길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신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례코스에 참여를 안내하여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인사 단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17일 제1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차장급 인사이동이 대거 이뤄졌다. 차장급 인사로는 김정호 재무부 차장, 공승관 문화부 차장, 전인동 호법부 차장, 권대식 교육원 차장, 정유탁 포교원 차장, 김한일 불교중앙박물관 차장, 심원섭 승려복지회 사무차장, 성만제 미래본부 차장 직무대리 등이다.

팀장급 인사는 △유남욱 총무부 총무팀장 △조영덕 사찰교무팀장 △김추연 기획실 홍보팀장 △신유철 대외협력팀장 △김재훈 감사팀장 △손승희 재무부 회계팀장 등이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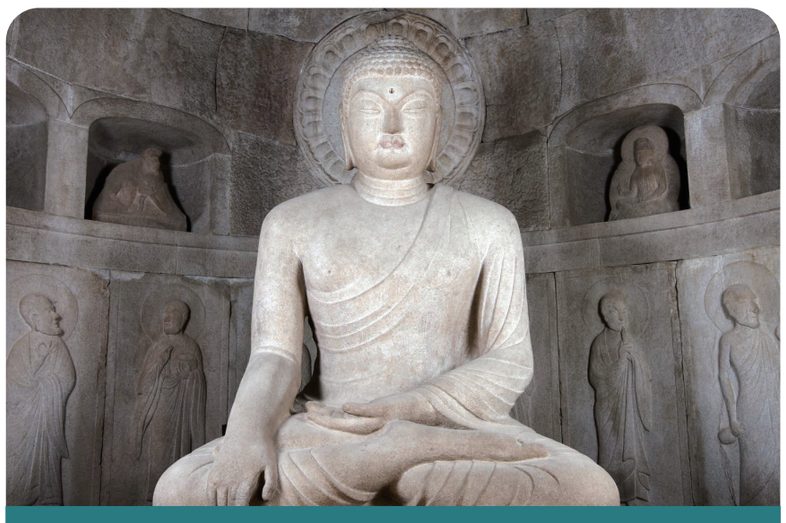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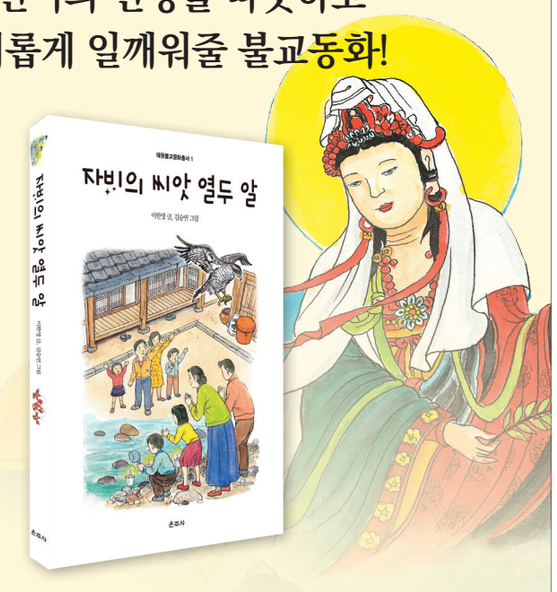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